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4. 5. 19. Vol. 20

■ 농정이슈

국산 콩 산업 위기에 대한 원인 논란

■ 정책브리핑

6차산업화 체계적 추진기반 구축

■ 연구지원

FTA 10년 과일류 수입동향

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

금주의 핫 이슈

<국산 콩 산업 위기에 대한 원인 논란>

- [콩 재배농가 재배 포기 고민] 콩 재배농가, 위협받는 콩 생산기반*, 국산콩 생산량증가·판매부진·재고증가·가격하락으로 인해 **본격적인 콩 파종기 앞두고 재배 지속 혹은 다른 품목 전환 여부 고민**

※ 사료용 포함한 콩 전체 자급률 9% 정도에 불과해 콩 수입국 세계 10위권, 식용콩 국내생산량 14만 톤 수준, 자급률 30%선

※ 국립종자원의 콩 보급종 신청·공급 현황에서도 감지, 4월 말 현재 콩 보급종 신청·공급량 현황을 보면 공급가능량 1,491t 중 70% 수준인 1,056t에 그쳐

<콩 산업 위기 원인 대립>

- [콩 농가, 농식품부 입장] 동반성장위의 두부제조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11.11월) 과정에서 **콩 재배농가에 미칠 악영향 간과**, 중소기업의 국산 콩 매입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기업이 국산 콩 매입 규모를 줄여 생산 농가들의 판로 확보 곤란**

※ 국산콩생산자연합: “두부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뒤 국산 콩 대부분을 사들이던 대기업이 국산 콩 구매량 줄여왔음. ('11) 1만4,216t → ('13) 1만1,600t”

- [동반성장위원회, 연식품조합 입장] **국산 콩 수요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과는 무관

- (중소기업연구원 원인분석) 확장자제를 권고받은 대기업이 수매를 줄일 수는 있지만, 중소기업의 두부 생산이 서서히 늘면서 감소분을 채워 콩 소비량은 적합업종 지정 전인 2011년과 비교해 줄어들지 않았음. 아울러 대기업이 수매를 적게 한 것도 적합업종 때문이 아니라 비싼 국산 콩 가격이 직접적인 원인

※ 두부업체 국산 콩 소비량: ('10) 대기업 1만4,732톤(72.3%), 중소기업 5,638톤(27.7%) → ('13년) 대기업 1만3,537톤(63.2%), 중소기업 7,880톤(36.8%)

※ CJ 관계자: “국산 콩 수매를 줄인 것은 적합업종 때문이 아니라 **국산 콩 가격이 수입 콩 대비 두 배나 비싸** 국산 콩 두부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줄어든** 게 원인”

※ 국산 콩(백태·중품) 도매가격: ('11) 6,646원(Kg당) → ('12) 5,175 → ('13) 5,954 → ('14) 4,099 / 수입 콩 가격: ('11) 3,166원(Kg당) → ('12) 3,464 → ('13) 3,861 → ('14) 3,440

- [정부방침]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 육성, 국산 콩 수요를 13만 톤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입 식용 콩 저율관세할당(TRQ) 중량 축소, 수입 콩 가격 현실화

※ 식용 콩 CMA(18만6천 톤)물량 이외 연간 2만~6만 톤 증량한 20만~25만 톤 수입(국내 콩 생산위축 우려)

※ 국영무역 방식수입 공급가격, 정부가 정한 kg당 1,020원 판매(국산 콩 가격경쟁력 저하)

자료 : 국민일보(2014.4.25.) / 농민신문(2014.5.12./14.) / 농민신문·서울경제(2014.5.16.)

농정이슈

한·중 FTA, 높은 수준·적기 체결해야

- [제15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5.15일] 경제혁신·규제개혁 노력 지속, FTA 추진 기회 활용하여 수출시장 다변화와 국가 간 무역관계 내실화
 - (추진방향) 현재 진행 중인 중국, 베트남 FTA,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수출시장 확대,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의 통상 확대 노력 움직임*에 적극 대응
 - ※ 미-EU FTA, 일-EU EPA 추진 등 / 특히 일-EU EPA는 '15년 중 대체적 합의 도출 한다는 목표 설정(5.7일, 아베총리 유럽 순방 중)
 - [한중 FTA 제11차 협상 추진방안] 중국 경제력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 RCEP* 등 지역통합 논의에서 중국과 높은 수준의 FTA·적기 체결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수행
 -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
 - (국익 최대한 반영, 적극적 대응방안 강구) 농수산물 등 민감품목의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장치 마련, 농수산식품의 대(對)중국 수출 활로 개척 지원
 - [한베트남 FTA 협상 추진방안] 베트남과는 한-ASEAN FTA가 발효 중이지만, 양허 수준 낮아, 이미 베트남과 양자 FTA를 체결한 일본 등 경쟁국 기업들에 비해 한국 기업의 수출 여건 좋지 않은 상황
 - (동남아 진출 위한 교두보 역할 공고) 한국 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 한국 경제발전 경험 및 노하우 공유 노력 강화하여 경제분야에서 양국의 협력관계 내실화
- 자료 : 매일경제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이데일리·조선일보·파이낸셜신문·한국경제·헤럴드경제(2014.5.16.)
- 참고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_「「제15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2014.5.15.)

<정부 한·미 FTA 원산지 검증 합의서 미공개>

- [미국 정부 보증서 인정 요구 수용*] 사실상 한·미 FTA 개정에 해당, 농축산물 수출입과 관련한 합의 이뤄졌지만 산업통상자원부, 미국과 합의한 문서 현재까지 미공개**
 - ※ 한·미 FTA 협정에 따른 미국 농무부 품질보증서를 원산지 입증 서류의 하나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한·미 FTA에 따른 '제로 관세' 혜택
 - ※※ 박주선 의원, 이번 합의가 한·미 FTA 개정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즉각 합의서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
- 자료 : 경향신문(2014.5.13.)

농정이슈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이견 여전>

-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위한 제2차 협의 실시, 5.9일] 제1차 협의(' 14. 4.9.~10.)에서 해소되지 못한 차이점에 대해 중점적 논의
 - ※ 참석자: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공무원, 유식식품 인증분야 전문가, (미국) USDA(농무부), USTR(무역대표부) 등 관계분야 공무원
 - (양국 간 의견차 여전) 양국 간 차이점 해소 방안 협의에 일부 진척 있었으나 해소되지 않은 차이점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추가 협의 예정
- 자료 : 농민신문·농수축산신문(2014.5.12.)
-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 2차 협의 실시」(2014.5.8.),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제2차 협의 결과」(2014.5.9.)

<미국 버몬트주, GMO 라벨 부착 법안 통과>

- [미국 버몬트주, 자국 최초 유전자변형식품(GMO) 의무표시제 실시] GMO 최대 생산국인 미국에서 식품에 GMO 식별 라벨 부착하는 법안을 연방 사상 처음으로 시행(로이터 통신, 5.8일)
 - ※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16.7.1일부터 발효
 - (법안 주요내용) GMO 함유한 모든 식품을 소매장에서 판매하기 위해선 '유전 공학(genetic engineering)'에 의해 전체나 일부가 생산됐다는 사실 반드시 표기, 다만 식당은 제외
 - ※ GMO 식품을 '자연산(natural)'이나 '100% 자연산(all natural)'으로 묘사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
 - [식품가공협회(GMA), 이익단체 등 식품업계 반발] 미국 주의회 연합체인 주의회 전국회의(NCSL)에 따르면 현재 24개 넘는 주에서 GMO 표시제 논의 중이지만 식품가공협회(GMA) 등 식품업계 서명 직후 소송 추진 밝혀 낙관은 어려운 상황
- 자료 : 헤럴드경제(2014.5.9.) / news1·NEWSis(2014.5.10.)

남북관계, 잇따른 악재로 농업협력도 멈춰

- [박대통령, 남북농업협력 중요성 강조]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농업협력의 중요성 강조함에 따라 정부 주도의 남북농업협력 기대
- [악재 겹친 남북관계] 세월호 참사, 무인기 사건, 북핵 등 잇따른 악재로 남북 농업협력 진전 없는 상황
 - ※ 4월 출범 예정이던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도 일정 미정
- (북한 국방위원회, 4.12일, 박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 사실상 거부) 드레스덴 제안이 흡수통일 논리라고 비판, 사실상 거부의사 밝힌 이후 도발까지 감행

농정이슈

〈남북농업협력 강조〉

- (통일부 업무보고, '14.2.6.) '북한주민의 생활향상' 위해 농축산산림협력 추진
- (농식품부 업무보고, '14.2.24.)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및 추진단 구성, 과거 협력 경험에 있는 사업부터 발굴, NGO나 국제기구 등과 협력 주민 생활향상을 위한 농축산산림협력* 추진
 - ※ 온실농자재(종자, 농기구 등) 지원을 시작으로 공동영농 시범사업 확대, 시범조립 및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 추진을 통해 그린데탕트 사업으로 발전
- (박대통령, 독일 드레스덴, '14.3.28.) '북한농촌단지'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평화통일 구상' 발표
 - ※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3가지 구상 북측에 제안

- [일상 속 남북교류 통일 위한 '1090 TEK* 봉사단 발족', 429일] 한편, '내 생활 속 교류 통일' 취지로 우리 사회에 오래 축적된 **재능(Talent), 경험(Experience), 지식(Knowledge)**을 **북한 사회에 나눠 주고 전달교류**가 목표

※ (나눔 12개 분야) 의료·보건, 농사짓기, 가축기르기, 나무심기, 도시계획·마을정비, IT·소프트웨어, 디자인·발명, 여성, 문화·역사·예술, 법률, 스포츠, 외국어·외국문화

자료 : 농민신문-중앙일보(2014.5.12.) / 내일신문-연합뉴스(2014.5.5.15.) / 국민일보(2014.5.16.)

〈FAO, 북한 올해 쌀·옥수수 생산량 작년과 비슷〉

- [FAO, '식량전망' 보고서 발표] 북한 **올해 쌀·옥수수 생산량 각각 190만 톤, 230만 톤으로 전년과 비슷, 돼지고기는 11만3천 톤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 전망
 - ※ '10년~'12년까지 평균 북한 연간 쌀 생산량 170만 톤, 옥수수 생산량 210만 톤
- (올 가을부터 1년간 북한 주민의 1인당 쌀 소비량) **67.8kg**, 전년(65.4kg)대비 소폭 증가 전망

자료 : KBS SBS경향신문(2014.5.13.) / NEWSis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2014.5.14.)

한국-네덜란드, 농업 ICT 융복합 국제협력 모색

- [한-네덜란드 농업 ICT 융복합 산업화 워크숍 개최, 5.15일] 농식품부 장관*, 한국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농업관련 기업 및 기관들 네덜란드와 협력 통해 국제협력 모델 모색
 - ※ 농식품 분야인 마케팅과 물류 등의 가치사슬에 ICT 결합해 농식품 분야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 집중할 계획

〈한국-네덜란드 농업인 육성 협력〉

- [제1차 한국-네덜란드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5.14일] 농업분야 인적교류, IT 융합정책에 대한 정보교환, 종자·원예시설 및 식품클러스터 분야 기술협력 강화 등 양국 간 실질적 농업협력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 교환, 노력 지속 합의

농정이슈

- (국내 농업인 경쟁력 강화 상호 협력) 국내 농업인 육성 위해 i) 농업 전문가 초청, ii) 전문기술 습득 위탁과정 신설, iii) 품종 보호심사기술의 개도국 전수 협력

※ (인적교류분야) 작년 농업인 호응이 높았던 농업 전문가 초청 교육 올 하반기 2회 실시, 시설온실 운영·제어·관수 등 전문기술 습득 가능토록 네덜란드측에 위탁 과정 신설하기로 합의

자료 : news1·뉴스토마토·아시아일보·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2014.5.16.)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에 한-네간 적극 협력하기로 - 제1차 한-네덜란드 농업협력위원회 세종에서 개최 -」(2014.5.16.)

〈한국-폴란드, 농업협력 강화 방안 논의〉

- [한국-폴란드 양국 간 농업협력 강화 방안 논의, 5.15일] 한국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과 폴란드 마렉사비츠키(Marek Sawicki) 농업농촌개발부장관, 돼지고기 등 농식품 수출입현안을 비롯하여 농업협력 강화방안 논의

※ (농업분야 협력 지속 논의) 양국 장관은 수교 25주년 계기로 양국 간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

자료 : news1·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2014.5.16.)

참고 : 농식품부 동정_「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폴란드 마렉 사비츠키 농업농촌개발부 장관과 양국의 관심사항 논의」(2014.5.15.)

농식품부, 우수 외식업육성지구 3개소 선정

- [우수 외식업 지구 3곳* 선정] 외식산업 경쟁력 향상, 향토음식·로컬푸드 소비 촉진, 음식관광 활성화 위해 '14년 대상지 3곳 선정
 - ※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 산채마을,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대구 달서구 수밭골 웰빙음식거리
- [선정기준 보완·선정] 외식업 지구에서 우수 식재료 소비촉진* 및 관광·음식문화 등 관련 분야 간 협력*** 강화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 보완·선정
 - ※ 지정요건 중 우수식재료 사용비율 상향('13: 30% → '14: 40)
 - ※※ 지역 축제 공동 홍보·마케팅, 각종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 연계 강화에 배점 상향 조정

〈'우수 외식업지구' 지역 내 음식점 매출 증가에 영향〉

- [우수 외식업지구* 매출 증가] 농식품부, '12.4월 우수 외식업지구로 지정된 5개 지구 251개 음식점에 대해 '12년 매출 조사 결과 **전년('11년)대비 18% 증가**
 - ※ 향토음식 개발, 로컬푸드 소비 촉진, 음식관광 등을 통해 농업과 외식업이 연계 발전된 곳

농정이슈

- **(이유)** 우수 식재료 사용, 지역 특색 음식 제공, 합리적인 가격, 홍보 효과
 - ※ 특히, 우수 외식업지구로 지정 요건 중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친환경 농산물 등 국내산 우수 식재료 30% 이상 의무사용이 소비자들 호감에 영향

자료 : 농촌여성신문(2014.5.12.) / NEWSis(2014.5.13.) / 농민신문(2014.5.14.) / 한국농어민신문(2014.5.15.)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음식과 관광이 어우러진 먹을거리 명소 발굴지원」(2014.5.9.)

올해 한우송아지만 FTA피해 보상 유력

- **[농식품부, “송아지만 피해보전직불금 발동요건 충족” 밝혀]** FTA에 따른 피해 보전직불금이 '13년 처음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올해는 한우송아지만 포함될 가능성 높아**

※ 한편 '13년 FTA피해보전직불금 발동 이후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한우 60만3천 두, 송아지 30만 두 등 총 90만3천 두, (직불금 지원규모) 254억 원, 폐업지원농가의 경우 1만8천농가에서 26만 두 신청, 폐업지원금 규모 총 2천276억 원

- **(지급여부지급단가)** 수입물량 증가에 따른 국내 가격하락 기여도는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산하 FTA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 연구 통해 확정 예정*

※ 일정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다소 유동적

- **[폐업지원, 번식농가의 기준 설정 등에 대해 검토]** 올해 송아지만 직불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폐업지원의 경우 번식농가의 기준 설정 등에 대한 문제점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해 검토 중

자료 : 축산신문(2014.5.13.)

대한민국 제1호 동물복지 양돈농장 탄생

-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내 최초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 5.9일]** '13.9.1일 도입·시행된 동물복지 축산농장(돼지) 인증제*에 따라, 양돈농장 1개소 국내 최초 인증
 - ※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 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 표시하는 제도로 영국 등에서는 '94년부터 시행

- **(제1호 동물복지 양돈농장)** 전남 해남군에 소재한 2,900두 규모 농장(강산이야기)
 - ※ 낮은 사육밀도 유지, 돼지를 좁은 틀에 가두어 기르지 않고 운동이 가능한 공간과 충분한 깔짚 제공, 새끼돼지의 이빨이나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는 등 동물의 복지 수준이 일반농장 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

농정이슈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주요 취지]** 공장식 축산을 넘어 **지속가능한 축산** 으로서 **농장 동물에 대한 복지 수준 향상** 추구,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 제공**

※ 과도하게 밀집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는 소모성 질병 및 전염병 등으로 동물을 건강하게 기르기 어렵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동물 사육

- **[동물복지 인증 육성]**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를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운송·도축할 경우 (생산자) 동물복지 인증마크 표시·판매 가능, (소비자) ‘높은 수준의 동물 복지 기준에 따라 생산된 축산물’임을 쉽게 확인

- **[향후계획]**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 확대하여 축종별로 농장에서부터 운송·도축 까지 전반에 걸쳐 동물복지 연계하여 농장동물의 복지 수준 제고

※ '12년 산란계 농장, 이번 돼지에 이어 '14년 말 육계, '15년 한우우젓소 인증 추진

자료 : 국민일보·NEWSis·매일경제·세계일보·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한겨레·한국일보·헤럴드경제(2014.5.13.) / 농수축산신문·한국농어민신문(2014.5.15.) / 농민신문·농축유통신문·한국농업신문(2014.5.16.)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대한민국 제1호 ‘행복한 돼지농장’ 등장 - 쾌적한 환경에서 스트레스가 적은 건강한 돼지가 자라 -」(2014.5.12.)

조류인플루엔자(AI) 종식을 위한 추가 방역대책 추진

- **[야생철새 분변에서 H5N8형 AI 바이러스 검출]** 농식품부, 4.28일 제주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철새 분변(30점)에 대한 AI 검사결과 H5N8형 검출, 고병원성 여부는 검사 중(5.9일 기준)

- **[가금농가 일제 정밀검사 및 전국 일제소독주간 운영]** 역학 관련 농가나 철새 분변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간헐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가금농가 일제 정밀조사, 전국 일제 소독 등 추가 방역대책 추진

- **(가금농가 일제 정밀검사 실시, 5.13~16일)** 취약 지역(발생 시도)과 축종(종오리 → 산란계 → 육용오리 → 기타) 중심으로 실시(검역본부·시도·시·군·구·자치구·농업기술센터·축산진흥원)

※ (종오리 농가, 53개소) 전국 대상으로 검사 / (닭, 육계 제외) 위험지역(발생 시·도) 대상으로 간이키트 검사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정밀검사 실시

- **(「전국 일제소독의 날」 특별주간 운영, 5.12일 주간)** 소독 (기준) 주 2회(화·금) → 주 4회(화·수·목·금) 확대

※ '14.5.14일, 전북 고창 가금농가 소독현장 점검(농식품부 장관)

☞ 농정이슈

- **(발생농가 사후관리 일제점검, 5.13~16일)** 살처분 이후 잔존물에 의한 전파 위험에 대응하여 사후관리 실태 일제 점검 및 소독 실시
 - ※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 농진청 등을 동원, 일제점검 실시하고 농협 공동방제단 이용하여 발생농가 및 취약농가 대상으로 순차적 소독 실시
 - **(취약농가 일제점검 실시*, 5.19. 주간 예정)** 가금집산단지 내 소규모 농가 AI 발생 시 살처분 우려 사전 차단
 - ※ (소규모 및 혼합사육) 방역실태(소독 및 잔반급여 등) 점검
 - ※ (폐사축) 간이검사 실시 후 이상 있을 경우 정밀검사 의뢰
 - **(생산자 단체·계열사업체, 자율적인 일제점검 계획 수립·추진, 5.19. 주간예정)** 위탁 농가 대상으로 폐사 수 및 산란율 저하여부(동 증상 발견 시 검사의뢰) 및 소독실태 등에 대한 점검 실시
 - ※ 아울러 AI와 타 질병과의 구별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하여 신속한 신고 유도
 - **[AI 대응 국제표준안내서* 배포]** AI조기 발견 시 신속한 업무 대응방법 소개, 야생조류의 AI 예방에 필요한 표본수집 방법과 조류 질병 조사 시 적절한 표본 운반 방법, 동물 취급요령 등 수록
 - ※ 국립환경과학원,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 '06년 발간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번역한 한글 안내서
- 자료 : 경향신문(2014.5.10.) / KBS·내일신문·news1·뉴스와이어·NEWSis·연합뉴스(2014.5.12.) / NEWSis·머니투데이·매일경제·세계일보·시사뉴스·이주경제·연합뉴스·이투데이(2014.5.13.) / 농민신문(2014.5.14.) / 한국농어민신문(2014.5.15.) / 농축유통신문(2014.5.16.)
-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제주 하도리 야생철새 분변 검사결과 H5N8형 AI 바이러스 검출」(2014.5.9.), 「조류인플루엔자(AI) 종식을 위한 추가 방역대책 추진 - 가금농가 일제 정밀 검사 및 전국 일제소독주간 운영 -」(2014.5.12.), 환경부 보도자료_「야생조류 고병원성 AI 예찰 국제 표준 안내서 보급」(2014.5.12.)

☐ 남극 빙하 녹는 속도 돌이킬 수 없는 수준

- **[기존 전망보다 해수면 상승 우려]** 남극 빙하 녹는 속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라는 연구결과 2개가 잇따라 발표돼 해수면 상승이 기존 전망치보다 더 빨리 진행
- **(NASA, 지난 40년 동안 레이더 관측위성 이용해 빙하 녹는 속도 관찰 결과)** 남극 서부 아문센해 빙하가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일, 이 빙하가 다 녹으면 지구 전체 해수면 높이가 1~2m가량 상승 전망

☞ 농정이슈

- **(미국 워싱턴대 이언 주인 교수, 남극 서쪽 스웨이트 빙하 연구 결과)** 이미 빙하가 사라지는 단계의 초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 확인, 이 빙하가 다 녹으면 해수면 높이가 60cm 상승 전망, 짧게는 200년, 길게는 900년 넘지 않아 스웨이트 빙하 전체가 사라질 전망
- 자료 : SBS(2014.5.13.) / 국민일보·NEWSis·동아일보·문화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조선일보·한겨레(2014.5.14.)

<아카시나무, 온실가스 흡수에 탁월한 효과>

- **[아카시나무*, 온실가스 흡수에도 탁월해 일석이조(一石二鳥)]** 국립산림과학원, 우리나라 꿀 생산량 70% 차지하는 아카시나무 탄소저장량 약250만t**으로 온실가스 흡수에 탁월한 효과(5.12일)
 - ※ (아카시나무 꽃) 양봉농가에 연 1천억 원 이상의 수입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밀원 식물(꿀벌이 꽃꿀을 찾아 날아드는 식물) / (아카시나무) 온실가스 흡수량 높아 지구온난화의 대비책
 - ※ ※ 우리나라 전체 아카시나무가 승용차 약 380만 대 이상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그동안 흡수·저장하여 탄소를 상쇄시켰음을 의미
 - **[아카시나무 숲 면적]** 일제 강점기에 황폐화된 산지의 녹화와 연료림 조성 목적으로 식재된 아카시나무 숲은 1990년대 중반 약 10만ha가 감소돼 현재 26,770ha
- 자료 : 아웃도어뉴스·에코타이어·환경미디어·한국조경신문(2014.5.12.) / 머니위크·서울경제·이타임즈(2014.5.13.)
- 참고 : 산림청 보도자료_「아카시나무, 승용차 380만 대 배출 온실가스 저장」(2014.5.12.)

정책브리핑 6차산업화 체계적 추진기반 구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4.5.12.)

□ 개요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5.2일]** 농업의 6차산업화* 제도적 기반 구축
 - ※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특산물 제조·가공(2차 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 서비스(3차산업)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는 활동
- **(필요성)** 농업 부가가치 및 농가 소득 정체, 농촌 활력 저하되는 상황에서 6차 산업화 종합적·체계적 지원 위해 법·제도적 기반 필요
- **(추진경과)**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방안 마련*(' 13.6) → 농식품위, 2건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14.4.9) → 2차례 법안심사소위(2.19, 4.25) → 위원회 대안으로 법률안 의결(' 14.4.28) → 법사위·국회본회의의 통과(5.2)
 - ※ (일본) 농산어촌 6차산업화를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10.11월)
 - ※※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13.10.30, 이운룡 의원), '농업인 등의 농촌복합산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13.11.14, 박민수 의원)

□ 주요내용

- **[기본계획수립]**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농식품부장관, 매5년) 및 사·도, 시·군·구 시행계획(매년) 수립
 - ※ 지역 농산물 등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관광(3차산업) 서비스를 제공·판매하는 산업
- **[사업자인증]**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이 사업계획 작성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인증 신청 → 검토 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
 - ※ 인증사업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체계적 관리, 창업·판로·금융 지원 사업 추진하는데 필요한 각종 지원 받을 수 있게 됨.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지정 및 육성]**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을 특화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로 지정,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이나 공동 마케팅 지원

- **(지구 지정 시)** 농공단지·관광단지 지정,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등 타법상의 관련 사업에 대한 의제처리로 종합적인 개발 가능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영업시설]**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완화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대통령령에 두고, 지자체는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지역 특성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제정
- **[적합한 폐기물 처리기준이 마련 요청]** 농식품부장관이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에 적합한 폐기물 처리기준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
- **[기대효과]** 농업의 부가가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발효* 14.5.17.

□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발효 개요

- **[추진경과]** 한·중·일 정상 합의(' 03.10월) → 3국 투자보장협정 협상관련 논의 진행(' 04년~) → 공식협상 개최(' 07.3~ ' 12.3월까지 5년간 총 13차례) → 가서명(' 12.3.21.) → 서명(한·중·일 정상회의, ' 12.5.13.) → 3국 국내비준절차 완료 및 발효*
 - ※ 국내절차 완료 통보: 韓 국회('13.8.12.), 日 의회('13.12.19.), 中 국무원('14.4.17.), 협정(제27조1항)에 의거, "마지막으로 국내절차 완료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후"인 5.17 발효 예정
- **[기대효과]** 한·중·일 진출 한국 기업들의 투자활동에 큰 기여, 3국간 경제협력 가속화 위한 추진 동력으로 작용 전망
 - ※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3국간 체결하는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
- **[특징]** 기존 협정과 비교해, 투자자유화를 포함한 한·일 투자협정(' 03년)보다 수준 낮으나, 한·중 투자보장협정(' 92년 체결, ' 07년 개정) 보다는 높은 수준
 - ※ 한·중 투자보장협정은 중국의 기존 양자 투자보장협정 중에서 매우 높은 수준
 - ※ 일·중 투자보장협정('89년)은 한·중 투자보장협정보다 낮은 수준

☞ 정책브리핑

- **(개선된 사항)** 한-중 투자보장협정과 비교 시 △내국민대우의 예외범위 제한, △지적재산권 보호, △투명성 보장 등 강화
- **(기존 협정과 관계)** 3국간 투자보장협정과 기존 양자 투자(보장)협정 중 투자자가 유리한 협정 선택 가능

□ 주요내용

- **[내국민 대우 예외범위 제한]** 내국민대우 비합치 조치는 공공질서, 국가안보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만 허용하도록 제한
- **[이행요건 부과금지 범위]** 이행요건 부과금지 대상에 수출이행, 기술이전 등 포함
-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자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법 및 국내법 준수, 투명한 지적재산권 체계 구축 및 유지 등 의무화
- **[투명성 보장]** 협정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도입 시 즉시 공포, 법령 공포 후 발효까지 합리적 기간 부여 및 질의에 대한 응답 등 의무화
-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분쟁사안 발생 시 국제중재 청구 전 단계로 ‘국내 행정검토절차’ 인정하되, 남용 방지 위한 상세규정 마련
- **[조세조치]** 조세조치에 대해서도 수용과 보상 조항이 적용되며, 조세조치와 관련한 분쟁의 경우 분쟁해결절차를 원용 ISD에 회부 가능
- **[유령회사에 대한 혜택 부인]** 계약당사국에 등록된 유령회사(paper company)의 경우 이 협정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 **[기존 양자협정과 의 효력 관계]** 기존 양자협정의 효력을 인정하며, 투자자는 기존 양자협정과 비교하여 유리한 협정 적용

자료 : 외교부(2014.5.15.)

☞ 정책브리핑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활성화 계획 발표

□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활성화 계획 발표

- **[추진배경]**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및 대상품목 확대로 민간 자율관리 기능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편
 - **(한계성)**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등 신규 업무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인력 감소, 지속적인 원산지 단속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며, 단속위주 관리로는 표시제 정착에 한계성 노출
- **[추진목적]** 우수업체 지정을 통해 원산지 자율표시 분위기 조성하여 제도의 정착 유도 및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 **[추진경과]** 『원산지 자율관리표시제 시행지침』 확정 및 시행('05.5.23.)* →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 제도로 변경 시행('11.1.19.)***
 - ※ 농식품 판매업체 대상으로 482개소를 자율관리업체로 지정
 - ※ 우수업체 지정 대상 음식점, 가공업체로 확대
- **[기대효과]** 소비자 관심 유도, 지정된 우수업체 매출증대, 소비자 편의 도모

□ 주요 개선 내용

- **[지정대상 확대]** (현행) 가공판매업체,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일반음식점 → (개선) 집단급식소(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받은 휴게음식점까지 확대
 - ※ (신청시기) 연 2회(3·9월) → 4회(1·4·7·10월) 확대하여 신청업체의 불편 해소
- **[지원확대]** 우수업체의 자발적 참여 유도 위해 인센티브 확대 등 영업활동 지원
 - ※ 우수업체 지정서 이외 우수업체 표시판 추가 제작·배부, 누리집·홍보용 전단·광고 등 활용한 자율적인 홍보 허용, 신규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신문·현수막 등에 홍보
- **[정보제공]**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스마트폰 앱(농식품 안심이)에 우수 가공판매업체 정보 추가, 시·군·구 단위로 정보 제공
- **[관리강화]** 기준위반 업체에 대한 과감한 지정취소 등 관리 강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4.5.14.)

2014년도 마늘·양파 수급안정 보완대책 추진

□ 「2014년도 마늘·양파 수급안정 대책」 보완대책 마련

- 최근 마늘·양파 수급 여건변화에 따라 기 추진 중인 「'14년도 마늘·양파 수급안정 대책」*보완대책 마련
 - ※ 농식품부 보도자료_「마늘 수급안정 대책 추진상황 및 합리적 소비 당부」(2014.4.8.)
- [마늘·양파 동향] 마늘 재고('13년산) 과잉물량이 소비부진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증가하였고 햇마늘('14년산) 생산량 전망치는 당초보다 소폭 증가
 - (마늘) 과잉재고에 따른 산지 햇마늘 구매심리 저하 및 농협 수매여력부족 등으로 햇마늘 산지가격이 낮게 형성
 - ※ '14.3월 말 → 4월 말 기준: (재고과잉) 18천 톤 → 23, (생산전망) 329 → 343
 - (양파) 재배면적 증가, 작황양호로 생산량전망이 당초보다 크게 증가
 - ※ (양파생산/과잉전망) 1,456천 톤/80천 톤 → 1,584천 톤/200천 톤

□ 마늘·양파 수급대책 추진내용

- [마늘] 햇마늘 수확기 농가의 최소한의 소득보장 위해 '13년산 재고마늘 과잉물량 시장격리(12천 톤) 및 '14년산 수매비축 추진
- [양파] 수급조절매뉴얼상 심각단계 경보발령(3.14)을 유지하는 한편, 기존 공급량 조절 및 소비촉진시책 대폭 확대
 - ※ 중만생종 생산이전: 햇양파 소비촉진, 중만생종 조기출하 유도
 - ※ 중만생종 생산이후: 가공확대, 수출, 출하조절 등 종합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4.5.16.)

연구지원 FTA 10년 과일류 수입동향

자료 : 관세청(2014.5.13.)

□ 총괄

- [관세청, FTA 10년 과일류 수입변화 분석] FTA 체결 이전 '03년 대비 금액기준 3.3배 증가*(연평균 12.5%↑), 중량기준 1.5배 증가***(연평균 4.3%↑)
 - ※ 같은 기간 한국 대(對) 세계 교역증가 2.9배(3,726억 달러 → 10,752)
 - ※ ※ 과일류 수입단가 상승(예: 바나나 0.4/kg → 0.8), 체리 등 고가의 과일 수입증가로 중량보다 금액의 수입증가 높음.

Ⅰ 최근 10년간 과일류 수입동향 Ⅰ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3 대비	연평균
금액	전체	286	341	385	455	542	525	454	616	776	905	929	3.3
	FTA	256	286	325	390	460	445	392	543	680	817	862	3.4
비중	전체	89.6	83.7	84.4	85.6	84.9	84.8	86.3	88.3	87.6	90.3	92.8	3.2
	FTA	89.6	83.7	84.4	85.6	84.9	84.8	86.3	88.3	87.6	90.3	92.8	3.2
중량	전체	446	463	488	539	560	527	466	607	686	754	682	1.5
	FTA	424	426	453	503	517	485	433	571	640	714	647	1.5
비중	전체	95.0	92.1	92.9	93.4	92.4	92.0	93.0	93.9	93.3	94.7	94.8	Δ0.2
	FTA	95.0	92.1	92.9	93.4	92.4	92.0	93.0	93.9	93.3	94.7	94.8	Δ0.2

주: (과일류 분류기준) MPI 4단위(캐슈넛, 브라질넛 제외) / (FTA 수입) '13년 말 FTA체결 상대국 수입

- ['13년 수입과일 원산지별 수입비중, 금액기준] 미국(37.9%) > 아세안(35.5%) > 칠레(17.6%) > 페루(1.6%) 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90% 이상* 차지
 - ※ FTA체결국 수입비중('13년): 금액 92.8%(862백만 달러), 중량 94.8%(648천 톤)
- [FTA체결국 수입비중] '03년 대비 중량 기준 변화 거의 없으나(95.0% → 94.8), 금액 기준은 3.2%p(89.6% → 92.8) 증가
- ['13년 한국 과일류 수출] 1억 2천만 달러, '03년 대비 2.2배 증가
 - (주요 품목별) 배 1.8배, 딸기 6.6배, 감 4.6배 각각 증가
 - ※ 배(30백만 달러 → 55), 딸기(4 → 29.8), 감(2.5 → 11.4)
 - (수출비중, 수출품목 다양화) 최대 수출과일인 배는 감소(57%→46.9%)한 반면, 딸기(8.5→25.5%), 감(4.7→9.7%)은 증가

수입과일 종류별

- **[수입과일 종류]** 한국에서 직접 생산되지 않은 열대과일 위주로 수입
 - ('03년 수입비중, 금액기준) 오렌지(39.4%) > 바나나(31.8%) > 키위(7.9%) > 포도(7.5%) > 파인애플(5.9%) 순
 - ('13년 수입비중, 금액기준) 바나나(27.3%) > 오렌지(21.0%) > 포도(20.3%) > 체리(9.7%) > 파인애플(6.6%) 순
- **[바나나]** 대부분 필리핀산(97.5%), 한-아세안 FTA에서 관세인하가 되지 않은 '양허제외' 품목임에도 수입과일 중 '06년부터 1위 유지
 - ※ ('13년) 금액기준 27.3%, 중량기준 46.0%
- **['03년 5대 수입과일 비중*]** 92.5%, 그 밖의 과일은 7.5%에 불과, 수입과일 1-2위인 오렌지, 바나나가 전체 수입과일 중에서 70% 이상 차지
 - ※ 바나나, 오렌지, 포도, 체리, 파인애플, 키위
- **['13년 5대 수입과일 비중]** 84.9%, '03년(92.5%) 대비 감소한 반면, 레몬·망고·자몽 등 그 밖의 과일이 15.1% 차지하여 수입과일 품목 다양화
 - ※ 수입비중 변화('03년 → '13년, %): 체리(1.5 → 9.7), 레몬(1.4 → 2.8), 망고(0.8 → 2.6), 자몽(0.7 → 1.5), 딸기(0.6 → 1.5)

10대 수입과일 최근 10년 전후 수입량 비교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

품 목	금액						품 목	중량					
	'03	비중	'13	비중	'03대비	연평균		'03	비중	'13	비중	'03대비	연평균
바나나	91	31.8	253	27.3	2.8	10.8	바나나	221	49.5	314	46.0	1.4	3.6
오렌지	113	39.4	195	21.0	1.7	5.6	오렌지	145	32.5	153	22.4	1.1	0.5
포도	21	7.5	188	20.3	8.8	24.4	파인애플	37	8.3	76	11.1	4.3	15.7
체리	4	1.5	90	9.7	21.6	35.9	포도	15	3.3	63	9.2	12.8	29.1
파인애플	17	5.9	61	6.6	3.7	13.8	키위	13	2.9	20	2.9	2.1	7.5
키위	23	7.9	43	4.7	1.9	6.8	레몬	4	0.8	14	2.0	1.6	4.6
레몬	4	1.4	26	2.8	6.7	20.9	자몽	2	0.5	12	1.7	3.7	14.1
망고	2	0.8	24	2.6	11.0	27.1	체리	1	0.2	9	1.3	7.0	21.6
자몽	2	0.7	14	1.5	7.6	22.4	딸기	2	0.5	9	1.3	5.8	19.1
딸기	2	0.6	14	1.5	8.8	24.3	망고	1	0.2	6	0.9	4.3	15.6
합계	278	97.2	910	97.9	3.3	12.6	합계	440	98.6	675	98.9	1.5	4.4

주: (과일종류) MTI 6단위 기준 / (상위 10대 구분) '13년 수입금액 및 중량 기준 순위

수입과일 품목별 원산지

- **[오렌지]** 미국(95.5%) > 남아공(2.1%) > 칠레(1.7%)로부터 대부분 수입, '05년까지 금액기준 1위였으나, '06년부터 바나나에 추월되어 2위
- **[포도]** ('03년) 칠레(64.1%), 미국(35.0%)이 포도 수입시장 양분 → ('13년) 칠레(76.7%) > 미국(16.3%) > 페루(6.6%) > 터키(0.2%) 순으로 수입시장 다양화
 - (칠레산) FTA 발효 이후 수입이 크게 증가*, 전체 수입 비중 상승(64.1% → 76.7)
 - ※ 금액 기준: 10.6백(14백만 달러 → 144), 중량 기준: 5백(9천 톤 → 47)
- **[체리, 레몬, 자몽]** 미국으로부터 대부분 수입*, FTA로 인하여 관세가 철폐된 미국산 체리·레몬은 FTA 발효 전인 '11년 대비 각각 1.9백(45백만 달러 → 88), 2.7백(9백만 달러 → 24) 증가
 - ※ 미국 수입비중('13년 기준): 체리(97.3%) > 레몬(91.6%) > 자몽(82.5%)
- **[키위]** ('03년) 뉴질랜드 80% → ('13년) 뉴질랜드(70.3%) > 칠레(27.1%)* > 이탈리아(2.1%) 다양화, 이탈리아산 키위는 '13년부터 수입
 - ※ '03년 → '13년: 금액기준(2백만 달러 → 12), 중량기준(2천 톤 → 7)
- **[망고]** ('03년) 필리핀(97.4%) > 태국(1.9%) → ('13년) 태국(48.5%) > 필리핀(33.0%) > 대만(17.8%) 순으로 태국산 급증*
 - ※ '03년 → '13년: 금액기준 277백(4만 달러 → 12백만 달러), 중량기준 252백(10톤 → 24천 톤)
- **[수입과일 원산지]** 아세안산이 '05년부터 1위였으나, 한-미 FTA가 발효된 '12년부터 미국산이 아세안산 제치고 1위

10대 수입과일 원산지별 수입동향

단위: 백만 달러, %

품 목	미국				아세안				칠레			
	'03	비중	'13	비중	'03	비중	'13	비중	'03	비중	'13	비중
바나나	-	-	-	-	91	100	248	97.5	-	-	-	-
오렌지	109	97.1	186	95.5	-	-	-	-	-	3	1.7	-
포도	7	35.0	31	16.3	-	-	-	-	14	64.1	144	76.7
체리	4	92.1	88	97.3	-	-	-	-	-	-	-	-
파인애플	-	-	-	-	16	97.6	61	99.5	-	-	-	-
키위	3	12.2	-	-	-	-	-	-	2	7.8	12	27.6
레몬	4	97.5	24	91.6	-	-	-	-	-	2	8.1	-
망고	-	-	-	-	2	99.4	20	81.5	-	-	-	-
자몽	2	98.4	12	82.5	-	-	-	-	-	-	-	-
딸기	0.2	10.9	4	30.4	-	-	-	-	-	1	7.0	-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